HANNAH CHOI MINISTRIES

고난을 대하는 자세

오늘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10편 7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같이 다 핍박과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내온 핍박과 고난의 상황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신실함에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을 가졌고 모세는 충성된 믿음을 가졌고 요셉은 은총의 믿음을 가졌고 다윗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고 사무엘은 신실하고 단호한 믿음을 가졌고 다니엘은 불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한결 같이 고난의 도가니에서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의 과정보다 전화위복의 결말에 기도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의 시간을 지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육이 지배하는 사람으로부터 영,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미워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평하는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방탕한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냉정함에서 친절한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절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쓰임 받는 거룩한 일군이 되어 가는 시간 들임에 분명합니다. 필리핀에는 태풍이 자주 옵니다. 태풍이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으면 온 나라와 온 도시가 조용해집니다. 심지어는 개 짖는 소리, 닭 소리, 고양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흐릅니다. 단지 들리는 소리라 고는 지붕 위에서 태풍에 날아 갈 지붕을 못질해 수리하는 소리와 태풍 전야에 삐거덕 거리며 꺾어지기 직전의 나무와 흔들리는 잎새 소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안에 들어가 창문과 모든 틈새를 굳게 닫고 숨을 죽이며 태풍이 안전하게 지나가 주기 만을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족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는 자기를 떠나고 넷째는 자기를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준비할 때 고난이 유익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변화를 보며 성령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비우는 것은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우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 보며 하나님 안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바라 보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그 분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며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끝에는 인생의 유익과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사랑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반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ww.hannahchoi.org

Don Enrique Road
Antipolo, Rizal, Philippines

+82-10-6895-5411
+63-939-915-9665